

# 광주시-서진건설,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계획 변경 합의

### 내달 초 협약...투자비용 800억 늘어난 5600억



광주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 부지 전경.

광주시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민간사업자 3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진건설컨소시엄과 10월초 사업협약을 체결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광주도시공사는 그동안 서진건설과 사업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협상을 6차례 진행해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

서진건설 측은 공공시설 투자비 회수대책으로 상가시설 면적을 일부 확대하되 지역 소상공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안을 제출했다.

기존 상가시설은 지상 1층, 지하 1~2층 등 3개층 7만5900여㎡(옛 2만3000평) 규모였으나 이번에 지하 3층 1개 층 1만1550여㎡(옛

3500평)을 추가하기로 했다.

추가된 시설에는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의류' 업종은 입점하지 않는 조건을 달았다.

투자비용은 애초 4800억원에서 800억원이 늘어난 5600억원으로 책정했다.

서진건설은 관광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특화전략으로 트로피컬돔 규모 확대, 파크골프장과 4계절 정원 조성, 지역상생방안으로 로컬푸드마켓, 예술품·공예품 판매장, 청년 창업공간 등 특화된 상업공간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도시공사는 서진 측이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전문가 용역과 사업협약안에 대한 법률자문,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업협약에 서명할 계획이다.

협약이 체결되면 서진건설컨소시엄은 유원지 부지 약 41만7000㎡에 5643억원을 들여 휴양문화시설(트로피컬돔, 갤러리파크, 스포츠센터, 영화관, 파크골프장 등)과 숙박시설(특급호텔 160실, 레지던스 314실), 대규모 이벤트광장, 지역상생시설, 상가시설 등을 조성한다.

사업기간은 5년, 공사 기간은 4년 정도 소요된다. 시는 협약 체결 후 SPC합작법인 설립과 1년 정도 서류 준비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쯤 착공해 2025년 이전에 오픈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어등산 관광단지를 호남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한 특화전략과 지역상생 방안 수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공공성과 수익성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2005년 시작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군부대 포 사격장으로 황폐화한 광주 광산구 운수동 어등산 일대 277만8000㎡에 체육시설 등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의 재정투입 없이 순수 민간 자본으로 부족한 관광인프라 확충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왔으나 민간사업자의 부도와 소송 등으로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 왔다.

서은홍 기자

## 농업박람회 입장권 하나면 전남 관광지 40곳 할인

### 10월17~27일...무료 또는 최대 50%까지

'2019국제농업박람회' 입장권 하나면 박람회장 관람은 물론 박람회 기간 중 도내 주요 관광지를 무료 또는 최대 50% 할인된 입장료로 방문할 수 있다.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는 올해 행사에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박람회를 성공개최하고 전남 관광활성화를 위해 도내 주

요 관광지 할인 혜택을 제공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박람회 입장권 소지자는 완도수목원, 여수 해양수산과학관 등 전남도와 12개 시·군에서 운영하는 40개소의 관광지 입장료를 무료 또는 최대 50%까지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다.

오는 10월 17일부터 27일까지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일원에서 개최되는 '2019국제농업박람회' 기간에 해당 관광지 대표소에서 박람회 입장권을 보여주면 무료입장 또는 할인권을 구입할 수 있다.

전광호 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장은 "박람회 입장권 하나로 20개국 380개 기관·기업·단체가 함께하는 농업박람회와 전남의 주요 관광지를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기회"라며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조선대 장미의거리 상점가, 청년문화축제 개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가을! 청년문화축제'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조선대학교 장미의거리(후문 일원)에서 개최된다.

조선대장미의거리상인회(회장 김용운) 주관으로 추진되는 이번행사는 특성화 첫걸음시장(기반조성) 사업 일환으로, 5대 핵심과제인 △결제관리 △고객신뢰 △위생정결 △상인조직 강화 △안전관리 등 다 집대회와 더불어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조선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와 청년들의 버스킹 문화공연을 비롯해 고객들과 함께하는 노래자랑, 포토존 인증샷 이벤트, 남도청년보부상과 함께하는 플라마켓 등이 진행된다.

## 서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 호응

광주 서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국제기후환경센터와 연계해 진행된 이번 주민교육은 음식물쓰레기의 자발적 감량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지난 16일, 18일, 19일, 23일 총 4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주민들은 음식물쓰레기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발생 현황, 줄이기 필요성, 실천 방법을 시각자료를 통해 학습했다.

또 '우리집 냉장고 지도만들기' 등 다양한 교구를 활용한 체험도 진행돼 주민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진행됐다.

## 남구, 생태문화 분야 전문활동가 양성한다

광주 남구는 생태문화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해 오는 10월에 열리는 환경교실 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23일 남구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2019 환경교실 생태문화 자원 활동가 양성 교육'에 함께 할 수강생 모집이 진행된다.

양성 교육은 오는 10월 1일부터 24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이론 교육 및 현장 학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수강료는 무료다.

수강생 모집 인원은 선착순 50명이며, 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가운데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으면서 교육 수료 후 생태문화 분야에서 적극적인 활동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 북구, 산학연관 교류협력 1년 성과 눈길

광주 북구의 산학연관 교류협력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23일 북구에 따르면 24일 산학연관 16개 기관·단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산학연관 교류협력 확대 협약식 및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

북구는 지난해 9월 첨단산단경영지회, 본촌산단관리공단, GIST,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연구개발특구, 광주테크노파크, 국립광주과학관, 동부교육지원청, KOTRA광주전남지원단 등 10개의 산학연관 기관단체와 교류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협업사업들을 펼쳐왔다.

## 광산구, 건축 민원 처리 문자전송서비스 실시

23일 광주 광산구가 집과 건물을 지으려는 건축주 등 민원인에게 건축행정 처리과정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문자전송서비스 체계를 광주 지치구 최초로 마련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건축행정 처리과정은 현재 건축행정업무 전산화 시스템 '세움터'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건축주의 업무를 대항하는 설계사·건축사 등만 열람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다.

따라서 실제 민원인인 건축주와 건축행정을 담당하는 구 사이의 소통에 적잖은 문제가 발생했다. 광산구는 이번 문자전송서비스 구축으로 건축주를 비롯한 민원인에게 건축행정 처리과정마다 그 상황을 알려주고 있다. 단, 민원 접수 시 문자메시지 수신에 동의한 민원인에게 한해서다.

입행택 기자



## 한전,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기 보급사업 공모

한국전력(사장 김종갑)은 23일부터 전국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기 보급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10월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공모는 지난 2016년 8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방안'의 후속 조치로, 한전이 총 9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동주택 단지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난 3년간 2244개 단지에 전기차 충전기 5988기(급속 1766기, 완속 4222기)를 구축했다.

이번 공모는 한전 전기차충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한전 홈페이지에서도 접속 가능하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전기차 보유(또는 보유예정),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 충전시설과 그 부속시설물의 설치부지 제공, 전기차 전용 주차구획 배정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

전기차 보유대수와 세대수를 계량화해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세대 수를 반영한 설치기준 이내에서 희망하는 수량만큼 완속(7kW) 고정형 충전기 또는 소켓형(7kW) 멀티충전기를 한전에서 설치·운영하고, 충전요금은 사용자가 개인카드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번 공모는 지난 8월 1차 공모에 이은 추가 공모로, 한전은 이번 공모를 마지막으로 2019년 아파트용 전기차 충전소 구축사업을 종료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